

시즈쿠이시초와 고이와이 농장

시즈쿠이시초 - 사계절 여행지

이와테현 서부 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시즈쿠이시초는 이와테산과 고마가타케 산에 둘러싸인 스노 스포츠의 성지입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이킹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질이 다른 온천이 9 곳 있으며, 이외에도 전통공예품, 현지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 등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고이와이 농장

이와테산 기슭에 있는 고이와이 농장은 1891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민영 농장으로 약 3,000헥타르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초의 낙농업 역사를 배우거나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고이와이 농장 시설’을 견학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료관에서 농장의 역사를 배우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이와이 농장의 유제품은 일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농장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선구자

고이와이 농장의 창업은 메이지 24년(1891년), 세 명의 창업자인 오노 기신(小野義眞, 일본철도회사 부사장), 이와사키 야노스케(岩崎彌之助, 미쓰비시사 사장),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철도청장)의 성을 따서 고이와이 농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창업 초기 이 주변은 척박한 불모지였으며, 차가운 서풍이 불어오는 매우 건조한 산성 토양과 습지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토양을 개량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도입한 소와 말의 번식을 실시하여 육종가로서 일본 국내에 우량 품종을 보급하여 일본 축산계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와테 산기슭의 불모지를 개척한 지 130여 년, 고이와이 농장은 꾸준히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액티비티

고이와이 농장에서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메인 구역 ‘마키바엔’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 떼 관찰, 동물과의 교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궁, 승마, 마차, 트랙터가 끄는 수레를 타는 등의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키바의 크래프트 교실’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낙농업의 과거와 현재

일본 상업 낙농의 역사는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얕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2곳의 사일로와 6곳의 축사 등 부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모두 1898 년에서 1936 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미마루 축사 구역에서는 젓소와 송아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현재 낙농업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서는 고이와이 농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창업 당시의 모습과 100 년 이상 된 농기구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지 직송 식품

농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양고기, 축산가공품을 사용한 숯불구이와 바비큐, 우유를 베이스로 한 라멘, 피자 등 농장 내 레스토랑에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소프트아이스크림과 치즈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상점에서는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잼 등 고이와이의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생

고이와이 농장은 어느 계절에나 볼거리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와테산을 배경으로 활짝 핀 벚나무 가로수를 촬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중에서도 100 여 년 전부터 목초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벚나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옛날에 목장에서 기르던 소들을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어진 나무로 지금은 높이가 20m 나 됩니다.

농장에서는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며,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광활한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숲속 자연 체험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